

국힘 '어민 복송' 때리기...민주 '사적 채용' 역공

권성동 "반인권적 범죄 드러나 국회 차원 복송 영상 확보 분석" 박홍근 "신색깔론 국민 속지 않아" "대통령실은 지인 직업소개소"

국민의힘은 19일 '탈북어민 복송 사건'을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은 지인 직업소개소"라며 '사적 채용' 공세를 강화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령 흉악범이라도 귀순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혐의를 조사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 절차 없이 5일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정의의 전 안보실장은 탈북어민이 애당초 귀순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들은 남한에서 살고싶다는 문구를 작성했다고 하고 이 보호신청서가 현재 검찰 수사팀에 남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 복송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복송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송현장 영상 비교 방안과 관련, 권 대행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남한 NLL 수역으

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표류로 인해 남한으로 와서 자발적으로 복송을 원했던 사람들이 많다"며 "그 동영상이 확보되면 비교해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반인권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야만적·반인륜적 불법행위가 인권번호사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서 일어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탈북어민 복송 논란에 대한 여론의 공세를 '신색깔론'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이른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불을 지피며 역공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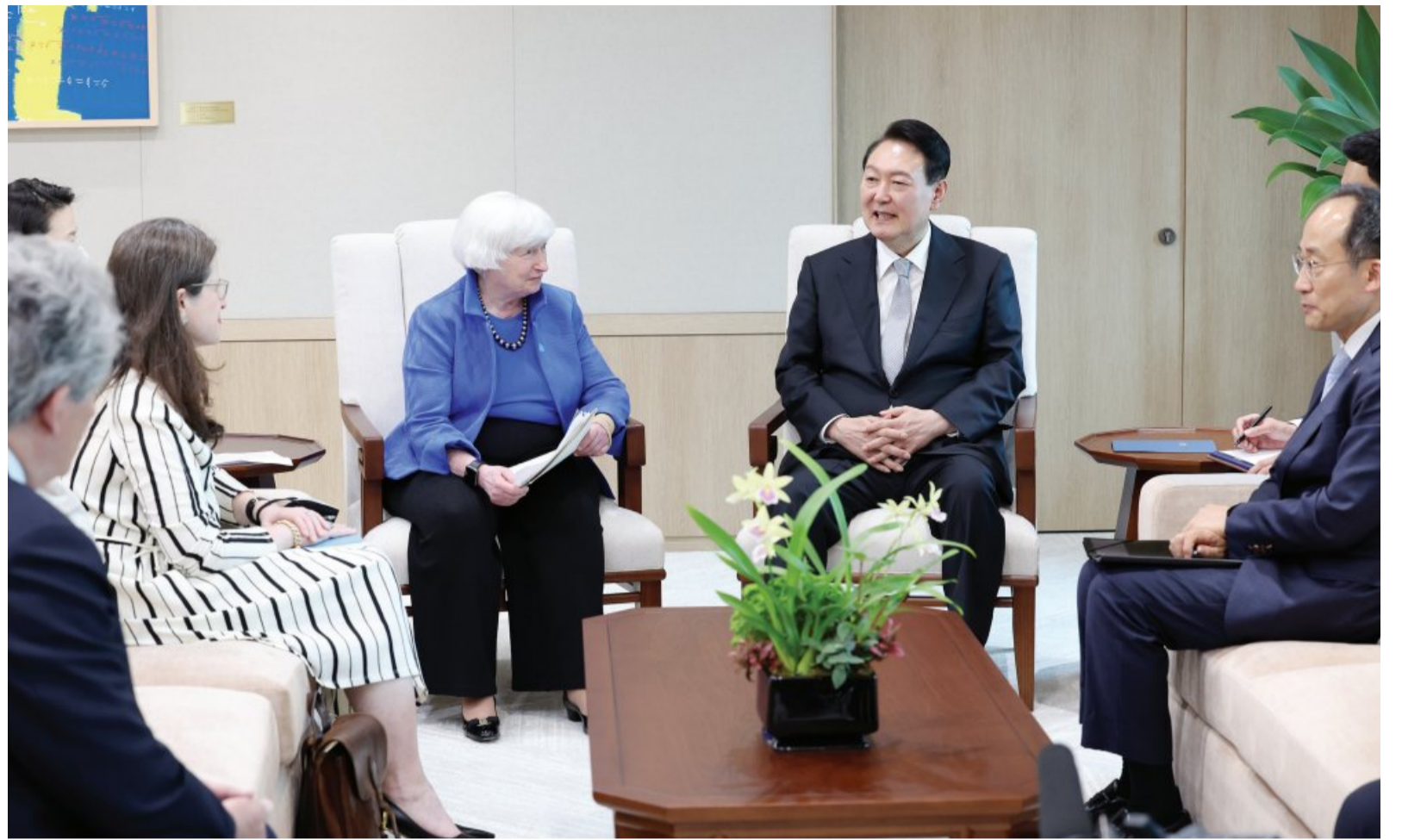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판 황해' 사건 당사자의 복송을 끄집어냈다"며 "이제 와서 새로운 사실 없이 신색깔론을 퍼도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잇따른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진상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며 "그 시작은 사적 채용 논란의 인사를 정리하고 국민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라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이곳에서의 인사 채용이 공사 구별을 못하고,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성근 의원은 "대통령과 얼마나 인연이 있고 친분이 있는가가 (인사) 기준인 듯하다"며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코로나 재확산 기로...중증 위주 관리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가 재확산 기로에 있다"며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이라며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치명률을 줄이는 데에도 (관계 당국이) 힘써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관련 분야의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있는 핵심 전략사항"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첨단산업 구조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장관들이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가 매우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현황을 점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이재용 사면되나... '광복절 특사' 준비

김경수 등 야권 인사 사면 가능성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준비를 위해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

단을 제출받은 뒤, 내달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권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

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십몇 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대통령은 형량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에 맞서 야권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주요 기업이 이 사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계는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원톱 체제 여론내 쓴소리 확산 "‘윤핵관 투톱’ 국가·국민위해 싸워야"

"권력다툼 양상 도움 안돼"

국민의힘 권성동 원톱 체제를 놓고 내부 견제가 이어지는 등 여당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원회통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여당 내용도 한몫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지적에 "그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행과 장 의원간 불화설에 대해 "꼭 불화라기보다는 두 분 다 정권 교체에 누구보다도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고 대통령께서도 신임이 워낙 많다"고 전제한 뒤 "우리가 질투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해 주면 그만큼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런 면에서 두 분 다 막중한 책임과 실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법론의 차이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내부토론으로 해결"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원 장관은 "(갈등이) 외부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 자체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신 그 토론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좋아야 되겠다" 합의된 결론이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고 우리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역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정 의원이나 계파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윤핵관 브라더'인 권 대행과 장 의원간 갈등 양상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 "정치 권력을 향한 싸움은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싸우는 과정에서 정반합, 그 대전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다툼에 이런 진정성이나 전제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